

#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창장삼각주지역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노수연 부연구위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이한나 연구원



#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창장삼각주지역

## 요약

- ▶ 중국경제의 중심지인 창장삼각주지역은 13·5계획기간(2016~20년)에 서비스업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창장삼각주지역은 상하이(上海)시, 장쑤(江苏)성, 저장(浙江)성으로 구성되며,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하고 대외개방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2011~15년 중 지역총생산(GRDP)이 연평균 10.1% 성장하였으나, 최근 수출입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타개책이 필요한 상황임.
- 13·5계획기간에는 중국 평균 수준의 경제성장(6.5~7.5%)을 유지할 것이며, 높은 부동산가격과 인건비로 인한 제조업의 역외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등 새로운 국가전략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창장삼각주지역 통합 발전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었으나,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은 지속될 것임.
- ▶ 상하이시는 금융과 해운을 중심으로 한 국제도시 건설에 집중할 계획이며,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상하이시의 13·5계획기간 정책방향은 경제·금융·해운·무역의 국제적 허브건설의 완성으로 요약되며, 특히 2016년 중에는 위안화 해외지불시스템(2기) 구축, 보험거래소 개소, 국제결제청산협회 등 금융 유관기관 집결 등 국제금융센터 부상을 위한 금융 개혁·개방 확대에 주력할 방침임.
- 상하이시는 대표적인 소비재 수입시장이므로 화장품, 의류, 소형가전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로 확보로 한국의 소비재 수출 타깃지역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또한 중국에서 가장 빨리 노령화시기에 접어든 도시이면서 시 정부의 양로서비스 육성의지가 강하므로 양로서비스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해볼 수 있음.
- ▶ 장쑤성은 쌍방향 대외개방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장쑤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FTA 산업 협력단지 조성, PPP 사업 참여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장쑤성의 13·5계획기간 정책방향은 일대일로를 위시한 대외개방의 다변화로 요약되며, 일대일로는 장쑤성의 건설장비제조 및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장쑤성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투자의 주요 대상지로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엔칭시의 중한산업단지 조성 참여 △한·장쑤 협력의 주요 의제에 PPP 사업을 포함시켜 환경보호, 교통, 관광, 의료분야 협력 강화 △한국이 경쟁우위를 확보한 내구소비재,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할 수 있는 농식품, 화장품 등의 수출 확대가 긴요함.
- 투자유망지역으로는 북부지역인 엔칭, 중앙아시아와 유럽 수출확대를 위한 물류기지 련윈강 등이 부각됨.
- ▶ 저장성은 인터넷과 서비스 위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헬스케어·패션 분야에서 우리와의 협력기회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 저장성의 13·5계획기간 정책방향은 산업융합과 업그레이드로 요약되며, 저장성의 수입전략,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등을 예의주시하여 우리 기업의 사업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음.
- 7대 중점산업 중 헬스케어·패션·첨단장비제조업 분야의 협력 및 진출을 추진하고, 항저우·닝보·저우산을 중심으로 주요 시범사업이 전개되는 만큼 이들 도시를 우선적인 협력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음.



## 차 례

1. 창장삼각주지역 경제 개황
2. 창장삼각주지역 13·5규획의 주요 내용
  - 가. 12·5규획과의 비교
  - 나. 5대 키워드 분석
3. 지역별 13·5규획의 핵심정책
  - 가. 상하이시: 경제·금융·해운·무역의 국제허브 건설
  - 나. 장쑤성: '일대일로' 전략 참여를 통한 대외개방 강화
  - 다. 저장성: IT·스마트제조 기반의 산업구조 고도화
4. 평가 및 전망
  - 가. 지역 종합
  - 나. 상하이시
  - 다. 장쑤성
  - 라. 저장성

참고문헌

## 1. 창장삼각주지역 경제 개황

- 창장(长江)삼각주지역은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하고 대외개방도가 높은 지역이며, 2011~15년 중 지역총생산(GRDP)이 연평균 10.1%의 속도로 빠르게 성장함.
- 창장삼각주지역은 상하이(上海)시, 장쑤(江苏)성, 저장(浙江)성으로 구성되며, 1992년 푸둥(浦东)신구의 개발과 수출, 외국 인직접투자 등을 바탕으로 중국 6대 권역 중 가장 빠른 성장을 유지해 옴.<sup>1)</sup>
- 창장삼각주지역의 면적은 21만 km<sup>2</sup>로 중국 전체 면적의 약 2%에 불과하나 2015년 중국 GDP의 20.5%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영향력은 큼.
- 2015년 중국 전체 수출입에서 창장삼각주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에 비해 1.3%p 낮아졌으나 34%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은 2011년의 26.9%에서 2014년에는 23.2%로 3.7%p 낮아졌으나 여전히 대표적인 외자유치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표 1. 창장삼각주지역 경제규모 및 위상

항목	규모			중국 내 비중(%)			
	2011년	2015년	연평균 성장률(%)	2011년	2015년	증감률(%p)	
GRDP (억 위안)		<b>100,624.8</b>	<b>138,451.5</b>	<b>10.1</b>	<b>20.8</b>	<b>20.5</b>	<b>-0.3</b>
	상하이	19,195.7	24,965.0	7.9	4.0	3.7	-0.3
	장쑤	49,110.3	70,600.0	11.3	10.1	10.4	0.3
	저장	32,318.9	42,886.5	9.5	6.7	6.3	-0.3
고정자산투자 (억 위안)		<b>45,840.0</b>	<b>78,922.9</b>	<b>14.5</b>	<b>15.2</b>	<b>14.3</b>	<b>-0.9</b>
	상하이	4,962.1	6,352.7	6.4	1.6	1.2	-0.5
	장쑤	26,692.6	45,905.2	14.5	8.8	8.3	-0.5
	저장	14,185.3	26,665	17.1	4.7	4.8	0.1
소비재 소매판매액 (억 위안)		<b>34,831.2</b>	<b>55,717.3</b>	<b>12.5</b>	<b>18.9</b>	<b>18.5</b>	<b>-0.4</b>
	상하이	6,814.8	10,055.8	10.2	3.7	3.3	-0.4
	장쑤	15,988.4	25,876.8	12.8	8.7	8.6	-0.1
	저장	12,028.0	19,784.7	13.2	6.5	6.6	-0.1
수출입규모 (억 달러)		<b>12,867.4</b>	<b>13,449.0</b>	<b>1.1</b>	<b>35.3</b>	<b>34.0</b>	<b>-1.3</b>
	상하이	4,374.4	4,517.2	0.8	12.0	11.4	-0.6
	장쑤	5,397.6	5,456.1	0.3	14.8	13.8	-1.0
	저장	3,095.5	3,475.6	2.9	8.5	8.8	0.3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b>564.0</b>	<b>621.3*</b>	<b>3.3</b>	<b>26.9</b>	<b>23.2</b>	<b>-3.7</b>
	상하이	126.0	181.7*	13.0	6.0	6.8	0.8
	장쑤	321.3	281.7*	-4.3	15.3	10.5	-4.8
	저장	116.7	158.0*	10.6	5.6	5.9	0.3

주: 1) GRDP의 연평균 성장률은 실질성장률이며, 나머지 지표는 명목성장률임.

2) 증감률(%p)은 각 지표의 2015년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대비 증감수준을 의미함.

3) 외국인직접투자는 2015년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아 2014년 데이터를 사용함.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2. 15); 上海市统计局(<http://www.stats-sh.gov.cn/>); 江苏省统计局(<http://www.jssb.gov.cn/>).

1) 司桂霞, 徐长乐, 秦可德(2014), 「新形势下长三角区域经济转型升级的突破点与潜在增长点」, 『科技管理研究』, 第20期.



- 12·5규획기간<sup>2)</sup>(2011~15년) 창장삼각주 3개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세를 보였으며, 저장을 제외한 상하이와 장쑤는 목표성장률을 하회함.
  - 지역별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상하이를 제외한 두 지역의 12·5 규획기간 경제성장률이 중국 전체 성장률인 8%보다는 높았으나, 세 지역 모두 동기간 연도별로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음.
  - 12·5 기간 상하이, 장쑤, 저장의 실제 성장률은 순서대로 7.5%, 9.6%, 8.2%를 각각 기록해 상하이는 중국 전체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장쑤와 저장은 각각 1.6%p, 0.2%p 높았음. 또한 상하이와 장쑤는 목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한 반면, 저장은 목표성장률을 0.2%p 상회하여 경제성과에 차이가 있었음.
  -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의 경우, 상하이와 저장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둔화세를 보였으나 장쑤는 2011년 11.0%에서 2015년에는 8.5%로 하락해 세 지역 중 하락폭이 가장 컸음.
  - 세 지역의 고정자산투자, 소비재 판매, 수출입, FDI의 2011~15년 중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상하이는 FDI 유입에서 높은 성장을 보였고 장쑤는 고정자산투자와 소비재 판매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저장은 네 분야에서 모두 고른 성장을 보임 (표 1 참고).<sup>3)</sup>
  - 상하이는 2011~14년 중 FDI 규모가 연평균 13% 증가해 창장삼각주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음.
  - 장쑤는 고정자산투자와 소비재 소매판매액 성장률이 창장삼각주지역 평균 이상이었으나, FDI가 연평균 4.3% 감소하고 중국 내 비중 또한 4.8%p 떨어져 외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유인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저장은 고정자산투자, 소비재 판매, 수출입, FDI 모두 역내 평균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했음.

표 2. 창장삼각주지역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단위: %)

	기간 비교			연도별 추이							
	12·5 기간 (2011~15년)		13·5 기간 (2016~20년) 목표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목표 성장률	
	목표치	달성치						목표치	증감여부		
상하이	8	7.5	6.5 이상	8.2	7.5	7.7	7.0	6.9	-	6.5~7.0	n.a.
장쑤	10	9.6	약 7.5	11.0	10.1	9.6	8.7	8.5	8.0	7.5~8.0	변화없음
저장	8	8.2	7 이상	9.0	8.0	8.2	7.6	8.0	7.5	7.0~7.5	변화없음
중국 전체	7	8	-	9.3	7.7	7.7	7.3	6.9	7	-	n.a.

주: 1) 달성치는 각 지방정부 발표수치를 근거로 하며, 표1에서 제시한 GRDP의 연평균 성장률과는 차이가 있음.

2) 증감여부는 2015년 목표치 대비 2016년의 목표성장률의 변화를 의미함.

3)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은 경우는 '-'로 표기함.

자료: 「粤苏进七万亿俱乐部 供给侧改革成各省实现目标重要途径」(2016. 1. 28), 『人民网』(검색일: 2016. 2. 4); CEIC Database(검색일: 2016. 2. 15).

2) 이하 본문에서는 12차 5개년 계획기간은 12·5규획기간, 13차 5개년 계획기간은 13·5규획기간, 「12차 5개년 계획」은 「12·5 규획」, 「13차 5개년 계획」은 「13·5규획」으로 약칭함.

3) FDI는 2015년도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아 2011~14년을 분석기간으로 함.

## 2. 창장삼각주지역 13·5계획의 주요 내용<sup>4)</sup>

### 가. 12·5계획과의 비교

- 창장삼각주지역 13·5계획의 목표치는 12·5계획과 비교할 때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대신, 3차 산업, 도시 화물, R&D 비중 등 경제구조의 개선을 주도할 지표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됨.
- 중국이 중속성장시대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여 창장삼각주 3개 지역 모두 13·5 기간 목표 성장률을 12·5 기간 목표치보다 1~2.5%p 낮게 설정함.
- 상하이 13·5계획기간 성장률을 세 지역 중 가장 낮은 6.5% 이상으로 발표하였고, 타 지역에 비해 12·5계획기간 높은 성장을 보인 장쑤는 가장 높은 7.5% 이상으로 책정하였으나 이 역시 12·5 기간 목표에 비하면 2.5%p 하향 조정된 것임.
-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12·5 기간에 비해 5%p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하여 3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R&D 투자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임.
- 상하이 13·5 기간 3차 산업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0%로 확대하고, GRDP 대비 R&D 비율을 3.5% 이상으로 높일 계획임. 이는 상하이 3차 산업과 R&D 투입 면에서 창장삼각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 장쑤도 3차 산업의 비중, GRDP 대비 R&D 비율을 모두 상향 조정하였음.
- 저장은 12·5 기간 GRDP 대비 R&D 비율이 목표치인 2.5%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3·5 기간 해당 목표치를 오히려 2.8%로 상향조정함으로써 R&D 투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

표 3. 창장삼각주지역의 12·5계획과 13·5계획 목표치 비교

항목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12·5 목표치	12·5 달성치	13·5 목표치	12·5 목표치	12·5 달성치	13·5 목표치	12·5 목표치	12·5 달성치	13·5 목표치
GRDP 연평균 성장률(%)	8	7.5	6.5 이상	10	9.6	약 7.5	8	8.2	7이상
1인당 GRDP(위안)	-	-	15만	8만 이상	(1.4만 달러 초과)	-	72,000	77,644	10만 이상
3차 산업의 비중(%)	65	67.8	70	48	48 이상	53	48	49.8	-
GRDP 대비 R&D 비중(%)	3.3	3.7	3.5 이상	2.5	2.5	2.8	2.5	2.3	2.8
도시화율(%)	-	-	-	63	66.5	67	63	65.8	-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성장률 (%)	8	8.4	(2010년의 2배)	10	(37,173위안)	(2010년의 2배)	8.5	9.8	7
1인당 농촌주민 순소득(%)	8	9.5	(2010년의 2배)	10	(16,257위안)	(2010년의 2배)	9	11.4	7

주: 1) [표 2]와 마찬가지로 12·5 기간 GRDP 연평균 성장률의 달성치는 각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를 근거로 함.

2)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은 경우는 '-'로 표기함.

3) 항목별로 제시된 단위와 다른 형태로 발표된 수치의 경우 ( ) 로 표기함.

자료: 「中共上海市委关于制定上海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12. 24), 『人民网』(검색일: 2016. 2. 17); 「江苏发布“十三五”经济和社会发展规划建议」(2015. 11. 25), 『安徽发展研究网』(검색일: 2016. 2. 17); 「中共浙江省委关于制定浙江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12. 4), 『人民网』(검색일: 2016. 2. 17).

4) 3개 지역이 2015년 말 발표한 「13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문(이하 13·5 건의문)」과 「2016년 정부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작성.

- 창장삼각주지역에서 표방한 13·5계획의 경제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12·5계획과 동일하며, 2020년 샤오강(小康)사회 건설 완성을 위한 기존 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임.
  - 상하이 12·5계획에서 △서비스경제 중심의 산업구조 형성 △신형도시화 건설 가속화 △지역간 협력발전 △스마트도시 건설의 가속화 △개혁심화 및 개방확대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추진하였으며, 13·5 시기에도 이들 정책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국제적인 과학혁신센터 구축 △국제적인 경제·금융·해운·무역허브 건설 △도시중심의 발전정책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함.
  - 장쑤는 12·5계획에서도 강조되었던 혁신주도 전략을 13·5 시기에도 핵심 발전동력으로 삼으면서 이를 △과학기술 혁신 △제도혁신 △문화혁신 등으로 더욱 구체화시킴.
  - 저장은 12·5 기간 경제발전 방식 전환의 일환으로 산업구조의 최적화를 강조하면서 농업, 공업, 서비스업의 현대화를 추진했으며, 13·5계획에서는 이와 함께 ‘스마트 제조’를 강조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과 서비스업의 발전에 주력함.
- 세 지역 모두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12·5 기간 말에 새롭게 제기된 국가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13·5계획에 반영함.<sup>6)</sup>
  - 세 지역 모두 ‘중국제조 2025’의 지역별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선진 제조기지를 설립할 계획임.
    - 상하이는 신형 디스플레이·공업용 로봇 등 스마트제조 발전을 지원하고, 전략적 신흥산업 집적 시범구를 건설하며, 집적회로(IC)산업펀드를 설립할 것임.
    - 장쑤는 국제적인 선진 제조업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의 제조장비 업그레이드 계획」과 「기업의 인터넷화 업그레이드 계획」을 실시하고자 함.
    - 저장은 로컬기업의 제조능력과 브랜드 경쟁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시스템을 제정하고, ‘made in 저장(Zhejiang)’을 하나의 브랜드로 구축하고자 함.
  - 인터넷 플러스와 관련한 액션플랜을 실시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임.
    - 상하이는 전통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해 시설장비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생산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임.
    - 장쑤는 ‘스마트 장쑤(smart Jiangsu)’ 건설을 추진하고, 인터넷서비스 플랫폼을 육성하며 빅데이터 전략을 시행할 계획임.
    - 저장은 전자상거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터넷금융, 스마트 물류, 디지털콘텐츠 산업 센터를 건설하고 세계인터넷대회를 개최할 계획임.
  - 세 지역 모두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획을 「13·5 건의문」에서 제시함.
    - 상하이는 금융 분야에서의 강점을 살려 금융기관이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것임.
    - 장쑤는 일대일로와 관련된 주요 국가 및 지역과 함께 △ 협력기제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 기초인프라를 공동으로 건설하며,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춤.<sup>7)</sup>
    - 저장은 해외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일대일로 건설계획」과 성(省)급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국제무역물류 중심, 국제산업협력시범구, 해외전자상거래 선도구를 구축하고자 함.

5) 샤오강(小康)사회는 중국 인민 모두가 중산층 이상인 ‘잘사는 사회’를 말하며,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강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2020년 GDP와 주민 1인당 소득을 2010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앵겔지수를 35%까지 낮추고 도시화율을 56%로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6) 지역별 자세한 내용은 2장과 3장을 참고.

7) 장쑤성의 ‘일대일로’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3장 나절을 참고.

## 나. 5대 키워드 분석<sup>8)</sup>

■ 세 지역 모두 13·5규획의 5대 키워드 중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2016년 중점업무로는 주로 공급 측 구조개혁 강화를 강조함.

- 상하이: 「13·5 건의문」과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13·5규획 관련 주요 내용에서 모두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의 순서로 업무를 발표했다. 또한 국제 경제·금융·항운·무역의 4대 중심 건설과 사회주의식 현대화된 국제대도시 완성을 목표로 함.
  - 2016년도 중점업무에서는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중점으로 한 개혁·개방을 첫 번째 중점업무로 제시함.
- 장쑤는 「13·5 건의문」에서 △경제력이 강한 장쑤성 건설 △주민의 풍족한 생활 △아름다운 환경 조성 △문명수준이 높은 사회건설의 4대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는 발전이념을 혁신, 개방, 조화, 공유, 녹색의 순서로 제시함.
  - 2016년도 중점업무에서는 공급 측 구조적 개혁 강화를 강조하면서 첫 번째 중점업무로 산업구조조정을 제시
- 저장은 「13·5 건의문」에서는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의 순서였으나, 「2016년 정부업무보고서」에 제시된 13·5 규획 관련 주요 내용에서는 혁신, 개방, 조화, 녹색, 공유 순으로 바뀜으로써 개방에 대한 중시 정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임.
  - 2016년도에는 공급 측 구조개혁 강화를 강조하면서 개혁·개방을 첫 번째 중점업무로 제시하되, 개혁을 더욱 중시함.

■ [혁신] 13·5규획의 우선과제로서 혁신을 강조하고 공통적으로 과학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개편을 중점업무로 다루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상하이는 국제적인 경제·금융·항운·무역중심 건설을,<sup>9)</sup> 장쑤는 소비·투자·수출 활성화를 강조함.

- 상하이는 정보가 공유되는 개방적인 혁신·창업의 기초 플랫폼을 건설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각종 체제·기제상의 장애를 해소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의 내생 동력을 강화할 계획임.
  - 2016년에는 해저장기(長期)관측망, 초강도·초단파 레이저, 활성세포 영상형성플랫폼 등 과학시설과 광양자 과학기술국가 실험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용 항공기 엔진과 가스터빈 등을 연구함. 또한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을 발전시키고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전략적 신흥산업 보드(战略新兴板)를 설립할 계획임.<sup>10)</sup>
- 장쑤는 기업 R&D 비용의 공제정책 및 「중국제조 2025 장쑤성 행동강령」을 시행하며 제조업 품질 경쟁력지수를 88점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소비확대를 강조함.
  - 특히 2016년에는 스마트제조를 주력방향으로 삼아 창저우(常州)스마트제조와 최첨단 신소재인 그래핀(graphene) 산업발전을 지원함. 또한 정보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스마트기기, 스마트 서비스 등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유급휴가제도를 활성화하여 휴가사용을 권장하고 문화소비를 발전시킬 계획임.
- 저장은 항저우(杭州)시를 혁신센터로 집중육성하고 기업이 과학기술 혁신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7대 산업 및 문화창의산업을 육성할 계획임.<sup>11)</sup>
  - 2016년에는 성(省)급 이상 개발구에 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대학에 창업학원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며, R&D 경비 1,100억 위안,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 2,100억 위안, 과학기술형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털 1,000억 위안 지출을 계획함.

8) 중앙정부의 「13·5 규획 제정에 관한 건의」에서 제시되었던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를 키워드로 함.

9) 상하이시의 4대 중심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3장 가절을 참고.

10) 상하이 시정부는 2015년 5월 중앙정부에 이미 신흥기업 유치를 위해 전략적 신흥산업 보드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음.

11) 저장성의 산업구조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3장 다절을 참고.





표 4. 창장삼각주지역 13·5 건의문(1): 혁신정책

상하이		장쑤		저장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도시발전의 신동력 활성화	4대 중심 건설 과학기술 혁신 중심 건설 제도 혁신(정부직능전환)	경제력이 강한 장쑤성 건설	혁신주도 발전 발전의 신동력 육성, 신공간 발굴 산업의 신체계 구축 농업의 현대화	경제체제 전환 및 업그레이드	과학기술혁신, 산업혁신 경제체제 혁신 잠재수요 발굴 기초시설의 현대화

자료: 표 3과 동일.

■ [조화] 도시와 농촌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상하이는 도시라는 특징을 반영하여 도심과 교외의 조화를, 장쑤와 저장은 역내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함.

- 상하이는 도시 발전구도의 최적화를 목표로, 적정 규모의 농업경영과 다기능 도시 농업을 발전시킬 계획임. 또한 2020년까지 상주인구규모를 2,500만 명 이내로 통제하고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교외는 산업구조조정과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우선과제로 삼음.
- 장쑤는 도시군을 주체로 신형도시화를 추진하면서 농업이전 인구를 많이 수용한 지역 및 농촌을 중심으로 사회사업을 시행하고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창장삼각주지역통합 등 국가전략에 부응해 새로운 역내 발전구도를 수립할 계획임.
- 저장은 현(縣)을 도시로 전환하고 해양특구 기반의 해양경제 시범지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표 5. 창장삼각주지역 13·5 건의문(2): 조화정책

상하이		장쑤		저장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도시발전 구도의 최적화	도심·교외의 조화로운 발전 도·농의 조화로운 발전 도시건설과 관리수준의 향상 도시문화의 소프트파워 증강	경제력이 강한 장쑤성 건설	신형도시화 도농발전 통합 역내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발전	역내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도·농의 조화로운 발전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융합

자료: 표 3과 동일.

■ [녹색] 생태환경 정비, 저탄소녹색경제 발전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상하이는 낙후한 생산력 조정이 주요 업무에 추가되고, 장쑤는 주체기능구<sup>2)</sup>를 강조한 것이 특징임.

- 상하이는 중국의 7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sup>13)</sup>으로서 탄소배출거래메커니즘 완비를 2016년 목표로 제시하며, 공업용지로 계획되거나 현재 공업용지로 사용 중인 지역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할 계획임.
- 장쑤는 절약한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철강·건자재·화학공업·비철금속 등 산업의 제로탄소배출을 촉진하며, 성(省)급 이상 모든 개발구에 생태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또한 주체기능구 건설과 관련하여 생태계 보호를 위한 마지노선을 준수해 생태계 보호구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철강업은 점진적으로 연해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임.
- 저장은 생태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해상농장(海上農場)을 건설하고, 에너지절약 및 폐기가스 배출감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12) 주체기능구(主体功能区)란 각 지역의 자원환경, 개발 집중도, 발전 잠재력 등을 기반으로 하여 해당지역을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개발수준에 따라 우수개발지구, 중점개발지구, 제한개발지구, 개발금지지구로 구분함.

13)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2년 1월 탄소배출권거래시범지역으로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광둥, 후베이, 선전 7개 지역을 지정함.

표 6. 창장삼각주지역 13·5 건의문(3): 녹색정책

상하이		장쑤		저장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도시생태 환경개선	낙후한 생산력 조정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 생태환경 건설 및 정비 환경보호 관련 법치 확립	아름다운 환경 조성	주체기능구 건설, 녹색발전 추진 환경오염 종합정비 강화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 건설 생태문명제도체계 완비	아름다운 저장성 건설	환경정비와 생태보호 자원절약, 집약, 고효율 이용 강화 에코경제 발전 생태문명제도건설

자료: 표 3과 동일.

- [개방] 개방형 경제 발전과 대내외 개방 확대를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고, 특히 상하이는 자유무역시험구 조성을 강조함.
  - 상하이는 중국의 FTA 전략과 세계 경제 참여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금융 개방시범사업과 상하이국제금융중심 건설을 연계해 발전시킬 것임을 새롭게 제시함. 또한 상하이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가 무역 및 R&D를 확대하도록 독려하고 외국계 R&D 센터가 글로벌 R&D 센터 및 개방형 혁신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되도록 장려할 계획임.
  - 장쑤는 일대일로 건설에서 외국과의 협력 주체로 활약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쑤저우(苏州)와 쿤산(昆山)을 각각 개방혁신의 종합적인 시험대(test bed)와 중·대만 간 산업협력시험단지로 발전시킬 계획임.<sup>14)</sup>
  - 저장은 수출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수입정책을 병행하여 기업이 선진기술과 핵심설비,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제품 등을 수입하도록 유도하고, 로컬기업의 다국적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이를 위해 2016년 「다국적 민영기업 3개년 액션플랜」을 제정하여 기업이 해외 M&A를 통해 핵심기술과 첨단 브랜드를 확보하고 해외시장점유율을 확대하도록 지원함.

표 7. 창장삼각주지역 13·5 건의문(4): 개방정책

상하이		장쑤		저장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개방형 경제의 신체제 구축	자유무역시험구의 고도개방 전반적인 개방형 경제발전 수준 향상 3대 국가급 지역사업에 적극 참여 타 지역과의 교류	경제력이 강한 장쑤성 건설	대내외 개방수준 향상	국제 경쟁력 향상	주요 개방 플랫폼 구축 개방형 경제발전 수준 향상 대외개방체제, 기제 혁신 권역협력 발전 추진

자료: 표 3과 동일.

- [공유] 교육, 취업, 소득증대 및 분배, 사회보장제도 중심의 민생안정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상하이는 양로서비스를, 장쑤와 저장은 창업 및 취업 장려정책을 강조함.
  - 상하이는 창의력이 필요한 지식집약형 노동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로서비스발전을 위해 양로기관에 설치된 의료기관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양로서비스시장을 전면 개방할 방침임.
  - 장쑤는 근로자의 평생직업훈련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기능인력군을 육성하고 신세대 농민공을 대상으로 한 직업기능 강화계획을 실시하며, 빈곤층 자녀·중고교 졸업자·농민공·실업자·퇴역군인 등에 대해 무료로 직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13·5 기간 도시 신규 고용자를 500만 명 확대할 계획임.

14) 장쑤성의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한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3장 나절을 참고.

- 저장은 대졸자를 중심으로 한 청년 취업과 농촌이주 노동자, 퇴역군인의 취업을 추진함.
- 이를 위해 2016년 「대졸자 취업촉진계획(高校畢業生就業促進計劃)」과 「대학생 창업유도계획(大學生創業引領計劃)」을 실시하고, 농촌 노동력 취업기능교육을 강화하며, 재취업 훈련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공익성 일자리를 늘려 어려운 계층의 취업을 촉진할 계획임.

표 8. 창장삼각주지역 13·5 건의문(5): 공유정책

상하이		장쑤		저장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민생보장 및 개선	교육 현대화와 취업보장 소득분배시스템 구축 사회보장제도 건립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편리하고 폭넓은 양로서비스	주민의 풍족한 생활	도농 주민소득 증대 취업 및 창업 촉진 빈곤구제 사회사업 발전 사회보장제도 구축	행복한 생활 창조	교육개혁과 취업의 질 향상 도농 주민소득 증대 사회보장제도, 의료보전·스포츠사업개혁 인구의 균형발전, 공공안전보장 강화

자료: 표 3과 동일.

### 3. 지역별 13·5계획의 핵심정책

#### 가. 상하이시: 경제·금융·해운·무역의 국제허브 건설

- 상하이시는 2000년대 들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국제적인 경제·금융·해운·무역 허브를 건설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세웠으며,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아 금융과 해운 허브 건설에 주력해 왔음.
- 2001년 공포된 「상하이 도시 총체계획(上海市城市总体规划)」에서 처음으로 상하이시를 국제적인 경제·금융·해운·무역 허브로 발전시킬 것을 명시하였으며, 2009년 국무원이 「상하이의 서비스업과 선진제조업 발전 및 국제금융허브와 국제해운허브 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국가차원에서 국제 금융 및 해운 허브 건설을 구체화함.<sup>15)</sup>
- 이른바 '4대 중심(四个中心)'으로 불리는 상하이의 국제허브건설계획은 상하이시의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의 일환임.
- 중국정부는 여타 지역에 비해 금융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운송네트워크,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기술혁신능력을 고루 갖춘 상하이시를 대상으로 금융시장의 국제화, 항공·항만 인프라를 활용한 무역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 특히 중국정부는 금융과 항공해운 분야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춘 허브를 건설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12·5 기간 상하이시 국제금융센터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이 「계획」에서는 금융시장 규모, 금융 국제화 정도, 금융서비스 기능, 금융발전 환경 등 분야에서 정량·정성적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2015년까지 상하이시를 위안화 관련 상품의 혁신, 거래, 가격결정, 결제를 총괄하는 세계적인 센터로 육성할 계획임을 강조함.<sup>16)</sup>

15) 国务院(2009), 「国务院关于推进上海加快发展现代服务业和先进制造业建设国际金融中心和国际航运中心的意见」.

16) 12·5계획 기간 상하이시의 국제금융센터 건설계획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수연(2012), 「12·5계획 기간 상하이시 국제금융센터 건설계획」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제12-0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참고.

- 12·5 기간 동안 국제허브 건설사업은 규모면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으나, 금융 분야는 국제적인 허브가 되기에는 아직 국제화와 자율성이 부족하고, 항공·해운 분야는 국내경쟁이 가열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과제로 남아 있음.
- 상하이의 금융허브 건설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시스템과 시장규모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제한적인 금융개방,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상존
  - 금, 선물, 증권,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 금융관련 거래소가 다양하게 설립되어 있고, 2015년 금융시장 거래액은 1,463조 위안으로 12·5규획에 명시한 2015년 목표인 1,000조 위안을 돌파함.
  - 2015년 9월 기준, 1,432개의 국내의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고, 상하이 로컬금융기관인 푸둥발전은행(浦东发展银行), 태평양보험(太平洋保险)은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될 정도로 성장했음. 또한 Ant Financial(蚂蚁金融)과 같은 인터넷 금융과 제 3자 결제(Third party payment) 등 새로운 금융기구도 발달함.<sup>17)</sup>
  - 그러나 자본계정 자유태환이 불완전하고 환율 및 금리의 완전한 시장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금융상품의 가격결정권에 제한이 있어 국제적인 영향력은 아직 부족함.
- 상하이는 물동량 부문에서 2010년부터 부동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 동부 연해에 위치한 여타 항만이 급격히 부상하여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해운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위험요인으로 작용
  - 세계 10대 항만 중 중국 대륙에 소재한 항만은 2006년 상하이, 선전 두 곳이었으나, 이후 닝보·저우산, 칭다오, 광저우, 텐진이 연이어 성장하면서 현재 여섯 곳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은 주로 동부 연해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 내에서도 항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임.
  - 또한 해운금융, 해상보험, 자문서비스 등 선진적인 해운서비스의 발전이 낙후되어 해상보험시장과 선박대출시장에서 상하이의 점유율은 1% 미만에 불과해 세계적인 항만규모에 비해 서비스 분야의 발전수준이 낮은 편임.

표 9. 주요 연도별 세계 10대 항만(물동량 기준)

(단위: 천TEU)

순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1	싱가포르(24,792)	싱가포르(29,918)	상하이(29,069)	상하이(32,529)	상하이(35,285)
2	홍콩(23,539)	상하이(28,006)	싱가포르(28,431)	싱가포르(31,649)	싱가포르(33,869)
3	상하이(21,719)	홍콩(24,494)	홍콩(23,699)	홍콩(23,117)	선전(24,037)
4	선전(18,470)	선전(21,417)	선전(22,510)	선전(22,941)	홍콩(22,226)
5	부산(12,039)	부산(13,453)	부산(14,194)	부산(17,046)	닝보·저우산(19,450)
6	가오슝(9,775)	두바이(11,827)	닝보·저우산(13,147)	닝보·저우산(16,175)	부산(18,683)
7	로테르담(9,653)	광저우(11,001)	광저우(12,546)	광저우(14,547)	칭다오(16,580)
8	두바이(8,923)	닝보·저우산(10,934)	칭다오(12,010)	칭다오(14,503)	광저우(16,378)
9	함부르크(8,862)	로테르담(10,784)	두바이(11,600)	두바이(13,280)	두바이(15,249)
10	L.A.(8,470)	칭다오(10,377)	로테르담(11,148)	텐진(12,303)	텐진(14,061)

자료: 香港特别行政区政府海事处, Ranking of Container Ports of the World(검색일: 2016. 2. 28).

- 13·5 기간 상하이는 4대 허브 건설과 관련하여 △경제허브는 산업경쟁력 제고 △금융허브는 시장가격 결정권 구비 △무역허브는 무역편리화 수준 제고 △해운허브는 허브항으로서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전반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것을 목표로 함.
- 허브건설과 관련하여 13·5규획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경제허브의 의미와 목표, 임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17) 상하이시 금융서비스판공실 금융발전협조처 관계자 인터뷰(2015. 9. 1, 상하이) 내용.



- 국제적인 경제허브란 뉴욕, 런던, 도쿄 등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종합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량을 집적, 확산하는 능력을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현대적인 서비스업과 전략적 신흥산업, 선진제조업이 토대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금융허브의 경우, 중국의 종합경쟁력과 위안화의 국제적인 지위에 상응하는 금융허브 건설을 위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과 가격결정권을 갖출 것을 목표로 함.
-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위안화 거래허브로서 상하이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를 위해 12·5규획상 핵심내용이었던 위안화 금융상품시장의 건설과 국제 위안화 금융상품 혁신·거래·가격 결정·결제에서의 중심적인 지위 확립 업무를 13·5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2020년까지 상하이 금융시장의 직접투자액이 중국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5%까지 확대하고, 상하이 GRDP에서 금융업의 비중이 1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임.
- 또한 2016년의 구체적인 업무로는 △위안화 해외지불시스템 2기 건설 지원 △보험거래소 개소 및 운영 추진 △전국적인 신탁 등기·어음(票据)과 국제결제청산협회 등 금융 유관기관의 집결 △금융관리협조기제의 구축 등을 추진함.
- 무역허브의 경우, 국내의 시장에서 자원분배 역할을 갖춘 국제무역허브 건설을 목표로 첨단물류 위주로 물류시스템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무역을 발전시키며 국제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이 발전하도록 지원할 것임.
- 13·5규획에서 최초로 국제적인 소비시장의 구축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고,<sup>18)</sup> 2016년에는 수출상품 전시거래플랫폼 건설, 대량상품(bulk commodities) 시장의 융합발전을 지원할 것임.
- 해운허브의 경우, 항저우와 함께 창장유역 중심의 국제 해운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해운발전종합시험구 건설을 추진 하고, 현대적인 해운업 발전에 필요한 금융·조세·인재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하며, 해양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임.
- 이를 위해 2016년에는 해운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국제환적(換積)업무의 관리감독을 최적화하며, 기능성 해운기관을 유치하고 해운금융 등 첨단해운서비스를 발전시킬 것임.

표 10. 13·5 계획기간 '4대 허브' 전략목표 및 주요 내용

4대 허브	목표	13·5 건의문 상의 주요 내용	2016년 주요 업무
금융중심	종합경쟁력과 위안화 국제지위에 상응하는 금융허브 건설	- 위안화 금융상품시장 건설 - 국제위안화 금융상품 혁신·거래·가격결정·결산의 중심지위 확립	- 위안화 해외지불시스템 2기 건설 지원 - 보험거래소 개업·운영 추진 - 전국적으로 신탁 등기·어음(票据)과 국제결제 청산협회 등 금융 유관기관의 집결 - 금융관리협조기제를 구축
해운중심	상하이 중심, 항저우와 함께 창장유역 중심의 국제해운허브 항 구축	- 국제해운발전종합시험구 모색 - 현대해운발전에 필요한 금융·조세·인재 등 관련 정책 개선 - 해양사업 및 해양산업 발전 지원	- 현대해운서비스 체계를 개선 - 국제환적업무 관리감독 최적화 - 기능성 해운기관 유치 - 해운금융 등 첨단해운서비스 발전
무역중심	국내외의 시장에서 자원분배역할을 구비한 국제무역허브 건설	- 첨단물류위주의 현대물류체계 개선 - 고부가가치 서비스무역발전 가속화 - 국제전자상거래 등 신행무역 발전 지원	- 수출상품 전시거래플랫폼 건설 - 대량상품시장 융합발전 지원
경제중심	종합경쟁력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집적 및 확산 능력 강화	- 현대서비스업 중심, 선도적인 전략적 신흥산업, 선진제조업이 토대가 되는 산업체계 구축	구체적인 언급 없음

자료: 「中共上海市委关于制定上海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12. 24), 『人民网』(검색일: 2016. 2. 17); 「上海市政府工作报告」(2016. 2. 2), 『中国经济网』(검색일: 2016. 2. 11).

18) 上海市人民政府(2016. 2. 3), 「迎接未来五年机遇与挑战 上海十三五规划建议解读」(검색일: 2016. 2. 20).

## 나. 장쑤성: ‘일대일로’ 전략 참여를 통한 대외개방 강화

- 개방형 경제를 대표해온 장쑤성은 최근 수출 둔화와 외국인직접투자 감소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면서 대외개방의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하였음.
- 장쑤성은 현재 FDI 규모가 중국 내 1위이지만 2013년부터 신규 투자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있으며, 수출 증가율 역시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그림 1 참고).
- 장쑤성의 상위 5대 수출대상국은 미국, ASEAN, 홍콩, 일본, 한국 순이며, 이들 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2015년의 경우, 주요 수출국의 비중은 △미국 21.5% △ASEAN 10.4% △홍콩 10.3% △일본 8.3% △한국 4.9%이며, 이들 국가의 비중이 2011년 50.8%에서 2015년 55.4%로 4년간 4.6%p 확대되었음.
  - 따라서 주요 수출국의 경기변화에도 좌우되지 않고 수출확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선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서는 해외투자대상국의 다변화가 필요하나, 2014년 장쑤성 해외투자의 35.7%가 홍콩에 집중되는 등 해외투자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sup>19)</sup>

그림 1. 장쑤성의 수출 및 FDI 증감률(2010~15년)

(단위: %)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2. 20).

- 장쑤성은 중국정부가 일대일로 구상을 발표한 이후 2014년부터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활용할 의지를 보여 왔으며, 이를 통해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수출선의 다변화와 수출상품의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임.
- 장쑤성은 2014년 12월 「일대일로’ 건설 참여와 해외투자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여 해외투자 확대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sup>20)</sup>
  - ‘의견’에서는 장쑤성 기업의 일대일로 관련 국가 진출장려 및 편의제공, 자금지원정책 혁신, 해외투자 관리시스템 시행 등을 명시함.
  - 특히 재정자금의 지원에 있어 보조금 등 직접지원 규모는 축소하고 간접지원방식을 모색하며, ‘일대일로’ 펀드를 설립하여 장쑤성 기업의 투자 및 협력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19) 江苏省商务厅(<http://www.jsdoftec.gov.cn/>).

20) 江苏省人民政府(2014), 「江苏省人民政府关于抢抓“一带一路”建设机遇进一步做好境外投资工作的意见」.

- 실제로 2015년 6월 '일대일로' 투자펀드를 설립하여 '일대일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민간자본의 장쑤성 '일대일로' 건설 사업 투입을 유도하고 있음.<sup>21)</sup>
    - 펀드의 총 규모는 2015년 1기는 30억 위안으로 시작하여 2017년 100억 위안, 2020년에는 총 300억 위안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주로 장쑤성 기업의 해외투자 및 경제협력, '일대일로' 연관국가 진출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것임.
  - 장쑤성 상무청은 2015년 10월 △'일대일로' 참여 관련 정책홍보 확대 △대외투자 및 무역 편리화 추진 △해외산업클러스터 건설 지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및 종합서비스 강화 등을 발표함.<sup>22)</sup>
  - 또한 '일대일로'를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무역 확대는 장쑤성의 무역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것임.
    - 최근 들어 장쑤성이 전통적으로 우위를 보여 온 산업인 의류방직·전자재·기계전자 제조업 등의 해외이전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에 따른 장쑤성의 기기설비 및 원부자재의 수출 효과도 증대되고 있음.<sup>23)</sup>
- 13·5계획기간에도 장쑤성은 개방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하에 일대일로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도시·인재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개방형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임.**
- 일대일로 루트와 연계되는 주요 국가와 협력메커니즘 및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초인프라 공동건설 산업협력, 프로젝트 건설 등 해외 투자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또한 련윈강(连云港)에 중·카자흐스탄 물류협력기지와 상하이협력기구(SCO)기지 건설을 추진할 계획임.
  - 선진 제조업기지와 산업과학기술혁신센터를 건설하여 기업·도시·인재의 국제화를 추진할 계획임.
    - 브랜드 국제화와 시장 다원화 전략을 통해 가공무역을 업그레이드하고, 일반무역의 규모를 확대하며, 서비스무역을 발전시킬 것임.
    - 또한 고부가가치상품과 서비스수출 비중을 높이고 적극적인 수입정책을 시행하여 무역구조와 산업구조의 최적화를 동시에 이루고자 함.
  - 그린필드 투자, 인수합병(M&A), 지분투자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장쑤성이 일대일로 건설의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고 외국인투자를 다양화하며 개방영역을 확대하고, 장쑤성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계획임.
    - 또한 '의견'에서는 장쑤성 기업이 일대일로 관련 국가에 진출하고 집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3~5년에 걸쳐 일대일로 중점국가에 2~4개의 성급 해외 산업클러스터를 건설할 계획임을 밝힘.
    - 2016년 2월 현재 장쑤성은 캄보디아 시하누크빌(Sihanoukville) 경제무역합작구와 인도네시아 쉹마 농공무역경제합작구(印尼双马农工贸经济合作区) 등 2개의 해외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2개의 해외산업클러스터 건설을 계획 중임.
  - 일대일로사업은 단기성 사업이 아니므로 장쑤성은 8대 중점 영역을 설정하여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참여를 추진할 계획임.
    - 장쑤성이 련윈강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연결되는 노선을 의미하는 신(新) 아시아-유럽 대륙교 경제회랑의 시발점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국제 산업·물류협력기지를 조성하고, 상호연계된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며, 경제무역·산업·에너지자원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고, 해상·금융·생태환경 협력을 강화하는 등 8개 분야에서의 업무에 주력할 계획임.<sup>24)</sup>

21) 「江苏省“一带一路”投资基金5年内将达300亿」(2015. 11. 28), 『苏州日报』(검색일: 2016. 2. 28).

22) 江苏省人民政府(2015. 10. 15), 「落实“一带一路”国家战略拓展对内对外开放空间新闻发布会」(검색일: 2016. 2. 19).

23) 江苏省商务厅(2015. 1. 12), 「抢抓“一带一路”建设机遇 加快江苏企业“走出去”步伐」.

24) 「江苏八大领域对接“一带一路”」(2015. 5. 14), 『每日经济新闻』(검색일: 2016. 2. 29).

## 다. 저장성: IT·스마트제조 기반의 산업구조 고도화

- 저장성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제조업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13·5 기간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서 산업구조 개편을 강조함.
  - 저장성은 중국에서 4번째로 경제규모가 크며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소기업, 민영경제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해 왔음.
  - 의류·방직 중심의 산업클러스터와 전문시장이 발달했고 ‘중국 민영경제의 발상지’로 불릴 정도로 지역경제에서 민영 중소기업의 역할이 컸음.
  - 그러나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출의존형 민영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왔음.<sup>25)</sup>
  - 2015년에도 저장성의 대형 화학, 섬유회사인 홍젠그룹(红剑集团), 쑹지그룹(庄吉集团) 등을 비롯하여 섬유, 의류, 신발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수 도산하거나 위기에 처함.
  - 임금상승과 공급과잉, 제조기지의 중서부지역 및 동남아 이전 등에 따른 제조업 침체와 경기둔화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저장성 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됨.
  - 이에 따라 12·5 시기부터 경제구조의 최적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구조 개편을 시작하여 13·5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임.
- 12·5 시기에 진행된 산업구조 개편은 △제조업 업그레이드 △서비스업 발전 촉진 △산업클러스터 및 특색마을(特色小镇) 건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하이테크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이 가시화됨.
  - 12·5 시기부터 저장성은 ‘스마트 제조’를 강조하며 하이테크산업 발전을 통해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이끌어 옴.<sup>26)</sup>
  - 하이테크산업과 장비제조업은 12·5 기간 각각 연평균 9.8%, 8.7% 성장하였으며,<sup>27)</sup> 특히 하이테크산업의 부가가치가 연간 영업수입 2천만 위안 이상 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4.1%에서 2015년 37.2%로 5년 사이에 13.1%p 상승했음.
  - 12·5 시기에 서비스업이 저장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동기간 GDP 성장에 대한 서비스업 기여도는 평균 55.2%를 기록하였고 2015년에는 65.7%에 달함.<sup>28)</sup>
  - 저장성의 서비스업 비중은 2014년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추월하였고 2015년에는 49.8%에 달해 12·5 계획의 목표인 48%를 상회함.
  - 또한 12·5 시기에 1차, 2차 산업의 성장률이 하락한 것과 달리 3차 산업은 2012년부터 10% 이상의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어 저장성 경제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임.
  - 특히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2014년 저장성의 전자상거래 거래액과 인터넷 소매판매액이 각각 중국 전체의 1/6과 1/5를 차지함.
  - 2014년 15개의 성(省)급 산업클러스터에서 육성할 업종으로 △IT △스마트제조장비 △선진 교통·운송설비 △에너지절약

25) 저장성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노수연(2011), 「저장성(浙江省) 중소기업의 경영난 실태와 전망」, 중국성별동향브리핑, 제11-20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참고.

26) 저장성이 2012년에 발표한 「저장 제조업 강성(强省) 건설 12·5계획에 관한 통지(浙江省人民政府关于印发浙江工业强省建设十二五规划的通知)」를 통해 ‘스마트제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27) 浙江省统计局(<http://www.zj.stats.gov.cn/>); 浙江省发展和改革委员会(<http://www.zjdpc.gov.cn/>).

28) 浙江统计局(2016), 「砥砺前行 转型发展——“十二五”时期浙江经济社会发展报告」.



환경보호 △바이오의약 △신소재 △신에너지 △서비스업 등 8대 중점산업을 확정함.<sup>29)</sup>

- 또한 현급(縣級) 중심의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특색마을(特色小鎮)을 건설하여 첨단산업 유치, 산업고도화,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함.

■ 저장성의 13·5 기간 산업구조 개편에서는 IT경제를 주축으로 선진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과 7대 중점산업의 육성이 강조됨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을 병행하면서 인터넷기술을 모든 분야에 접목할 계획임.
- 선진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저장성 행동 강령」을 실시하며, 로봇 및 인공지능 설비, 신에너지차 동차 및 교통장비 등 11개의 첨단기술관련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11개의 대형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임.
- 「산업로봇 액션플랜」, 「‘made in 저장(Zhejiang)’ 액션플랜」, 「마이크로기업 성장규획」 등 관련 계획을 제정하여 산업육성과 기업지원을 촉진할 것임. 또한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업로봇 생산 및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2020년까지 산업로봇을 10만 대 이상 설치할 계획임.
- 「인터넷 플러스 액션플랜」<sup>30)</sup>을 실시하고 전자상거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터넷금융, 스마트 물류,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차세대 IT산업 센터를 구축하여 정보화와 산업화가 융합된 국가 시범지역을 만들 계획임.

표 11. 저장성의 12·5와 13·5 계획기간 산업구조개편 방향 비교

	12·5 시기	13·5 시기
공통점	- 전통 우위산업 개조 -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발전 - 서비스업 발전 - 산업클러스터, 특색마을 건설	
차이점	- 전통 우위산업의 개조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강조	-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서비스업 발전 중시 - 인터넷플러스 등 산업의 융합 발전 추진 - 중점 산업의 변화

자료: 「中共浙江省委关于制定浙江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12. 4), 『人民网』(검색일: 2016. 2. 17); 「中共浙江省委关于制定浙江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2012. 6. 11), 『中国经济网』(검색일: 2016. 2. 15).

- IT, 에너지절약·환경보호, 헬스케어, 여행, 패션, 금융, 첨단장비제조·신소재 산업을 7대 산업으로 선정하여 2020년까지 1조 위안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 이를 위해 2016년에는 7대 산업의 특색마을을 건설하여 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목표를 하며, 개발구와 산업클러스터를 핵심구로 격상시키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임.

29) 浙江省人民政府办公厅(2014. 11. 20), 「浙江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浙江省产业集聚区提升发展方案的通知」.

30) 「인터넷 플러스 액션플랜(浙江省“互联网+”行动计划)」은 2016년 1월 통과되었으며, 2017년 까지 스마트물류, 클라우드 컴퓨터, 빅데이터, 인터넷금융 혁신과 전자상거래 분야의 ‘인터넷 플러스’ 선행구와 시범구 구축, 2020년까지 인터넷기술 및 응용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12. 저장성의 13·5 계획기간 7대 산업의 중점 육성방향

	중점방향
IT	전자상거래,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터넷금융, 스마트물류, 디지털콘텐츠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기술 관련 장비제조, 신소재, 서비스
헬스	사설의료, 건강관리, 건강보험, 건강정보, 양로 등 서비스; 약품, 생물약,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체력단력용 제품 등 연구개발
관광	농촌관광 발전, 대형 여행사 육성, 관광산업가치사슬 형성
패션	패션의류, 피혁, 가구용품, 액세서리, 화장품
금융	은행, 증권, 보험업 발전; 저장성 출신 기업의 본부 금융, 사모펀드, 인터넷 금융 등 발전
첨단장비제조·신소재	로봇, 스마트 제조장비, 신에너지자동차 및 전지, 항공(신형 무인항공기 등), 궤도교통, 첨단선박 등 발전

자료: 『浙江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2016. 2. 1), 『浙江日报』, 第001版..

## 4. 평가 및 전망

### 가. 지역 종합

- 창장삼각주지역은 13·5 기간에 중국 평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 중국이 중속성장시대로 돌입한 것을 감안하여 세 지역 모두 13·5 기간 목표 성장률을 12·5 기간보다 1%p에서 2.5%p 낮게 설정함으로써 중국 평균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평가됨.
  - 13·5 기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경제구조로 신속히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세 지역 모두 높은 부동산 가격과 인건비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비용이 보다 저렴한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 서비스업 발전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새롭게 등장한 국가전략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별 13·5계획에서 창장삼각주지역 통합발전에 관한 관심은 예전에 비해 줄었으나,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은 13·5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2010년 「창장삼각주지역 계획(长江三角洲地区区域规划)」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상하이, 장쑤, 저장을 아시아태평양의 중요한 문호이자 세계적인 서비스업과 선진제조업 중심이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음.
  - 이에 따라 세 지역의 12·5계획에서 창장삼각주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나, 13·5계획에서는 보다 초(超)광역적인 국가사업인 창장경제벨트나 일대일로 사업의 참여로 초점이 변화하고 있음.
  - 그러나 상하이는 창장삼각주지역의 통합발전에서 13·5 시기에도 여전히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상하이는 창장삼각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되었으며, 일대일로 건설과 관련한 중국정부의 기본 구상에서도 상하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상하이에게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함.

- 이에 따라 장쑤와 저장성 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개혁·개방 경험을 자신의 지역에 적용할 것임을 밝히는 등 상하이의 선례를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할 의지를 보이고 있음.

## 나. 상하이시

### ■ 상하이의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정책방향은 국제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4대 허브건설의 완성으로 요약되며, 특히 국제 금융센터로서의 부상을 위한 핵심요소인 금융 분야 개혁과 개방확대가 13·5규획에서도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 중국 및 상하이시 정부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금융센터로서는 아직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임.
- 2015년 9월 발표된 GFCI 18(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에 따르면 상하이는 전세계 84개 금융센터 중 21위로 6개월 전에 비해 5단계 떨어졌으며, 아시아에서도 홍콩(3위), 싱가포르(4위), 도쿄(5위), 서울(6위), 오사카(20위)보다 낮은 수준임.
- 또한 GFCI 18의 분류에서 상하이는 글로벌(global) 금융센터보다 한 단계 낮은 국제적(transnational) 금융센터로 분류되고 있어 아직 글로벌 금융센터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sup>31)</sup>
- 상하이는 2020년까지 국제금융중심 건설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으며,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정량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위안화의 국제적인 지위에 부합하고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부합해야 한다”는 정성적인 기준도 있음.
- 그러나 자본계정의 자유태환이나 위안화의 국제화 등이 여전히 미결과제이며, 최근 중국 증시폭락으로 인해 환율개혁이 당분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금융업 개방에 있어서 WTO 규정을 이행하고는 있으나, 중·미 투자협정(BIT)이나 FTA 협상에서도 금융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임.
- 따라서 상하이시는 13·5 시기에 자유무역시험구와 국제금융중심 건설을 연동하여 금융 분야의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중국정부가 금융중심 건설보다 자유무역시험구 사업을 더 중시하고 있는 만큼 상하이 시정부는 우선 시험구에서 개방실험을 추진한 후, 자유무역시험구의 명분으로 중앙정부에 개방을 요구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sup>32)</sup>
- 특히 2015년 금융지구인 루자주이(陆家嘴)가 자유무역시험구에 포함됨으로써 자본계정, 위안화 환율에 대한 행정통제가 시범적으로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상하이는 소비시장의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소비재 수입도시이므로, 한국 소비재 수출 타깃지역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상하이는 중국의 24개 대도시 중 베이징에 이어 2번째로 1조 위안 규모의 소비시장으로 성장함.
- 상하이에는 국제적인 유명브랜드 중 90%가 모여 있는 중국 내 최대 명품시장이며, 특히 수입품 소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여 2015년 상하이의 소비재 수입액은 423억 5천만 달러로 상하이 전체 수입액의 16.6%에 달함.<sup>33)</sup>
- 특히 상하이의 화장품, 의류, 소형가전, 영유아용품 등 시장에서 한국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최근 활발하게

31) QFC(2015),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18, *Financial Centre Futures*, p. 4, p. 12. (September)

32) 상하이시 금융서비스판공실 금융발전협조처 관계자 인터뷰(2015. 9. 1, 상하이) 내용.

33) 「'중국경제 소비가 답이다' 24개 도시 소비실태 분석」(2016. 2. 25), NEWSPIM(검색일: 2016. 2. 29).

이루어지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로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상하이 화장품시장은 외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80%에 달하며 한국제품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소형가전 중 녹즙기와 밥솥시장에서 한국제품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음.<sup>34)</sup>

■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빨리 노령화시기에 접어든 도시이기 때문에 양로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실제로 13·5규획에서도 양로서비스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진출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해야 함.

- 2020년 상하이 호적인구의 노령화 정도는 36%, 상주인구의 노령화 정도는 21%에 달할 전망이므로 양로문제가 민생안정에 있어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임.<sup>35)</sup>
- 13·5규획 기간 상하이는 주도적으로 인구노령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양로서비스 시스템의 개선과 완비에 주력함.
- 양로시설 분포 계획을 시행하여 2020년까지 상하이시 내에 양로 병상규모를 16만 개까지 확대하고, 양로기관 내 의료기관 설치를 지원하며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임.

## 다. 장쑤성

■ 대외수출과 외국인투자의 증가율 둔화로 인해 대외개방의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한 장쑤성은 13·5 기간에 일대일로 관련국과의 협력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도시·인재를 국제화하며 로컬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할 것으로 전망됨.

- 장쑤성 사회과학원 장위안펑(张远鹏) 원장은 장쑤성이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서 다져진 탄탄한 기반을 활용하여 일대일로 전략에 참여한다면 장쑤성이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낙관한 바 있음.<sup>36)</sup>
- 장쑤성은 장비제조업 분야에서 경쟁우위가 있고, 통신케이블·철도교통·공정기계 분야에서 우수기업이 포진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업이 적극적으로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건설프로젝트는 장비제조업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일대일로가 추진되면서 교량 건설, 도로 공사, 항만 건설 등 기초인프라 건설이 증가하여 건설회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므로 장쑤성 건설기업도 수혜를 받을 것임.
- 실제로 이미 일대일로 구상에 부응해 해외투자전략을 추진 중임.
- 일례로 2015년 9월 장쑤성은 카자흐스탄과 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Khorgos(霍尔果斯, 호로고스) Eastern Gate Special Economic Zone에 위치한 내륙항에 5년간 투자할 계획임.
- 또한 2015년 11월 장쑤 귀타이 국제그룹(江苏国泰国际集团) 산하의 형위안투자(恒源投资发展有限公司)가 투르크메니스탄 감초엑스(thick liquorice extract)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 협의를 시작했고, 장쑤성 정부가 도로 및 인프라 건설과 관련하여 인도와 MOU를 체결했음.<sup>37)</sup>

34) 「(창조경제 신실크로드를 가다) “상하이도 한류가 유망”」(2016. 2. 21), 『아주경제』(검색일: 2016. 2. 29).

35) 杨雄(2015. 12. 15), 「关于《中共上海市委关于制定上海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讨论稿)》的说明」.

36) 「江苏社科院专家: 一带一路将为建筑业迎来春天」(2015. 7. 28), JSTV(검색일: 2016. 2. 29).

37) EIU(2015), *Access China Jiangsu*, p. 8. (December)



- 장쑤성은 한·중 양국의 무역 및 투자에서 중요한 지역이므로 13·5 기간에도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 조성, PPP 사업의 공동시행, 수출확대 등을 통해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장쑤성은 한국과의 밀접한 경제교류관계를 활용하고자 창장삼각주지역 중 유일하게 「13·5 건의문」에서 “한·중 FTA에 적극 참여”를 주요 개방전략으로 명시하고 있음. 또한 중국 상무부에서 지정한 3개의 중한산업단지 중 하나로 장쑤성 소재 연청(盐城)시가 포함되면서 연청시 및 성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따라서 산업협력단지의 조성을 중심으로 한·중 FTA 활용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장쑤성이 최근 PPP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주택 △에너지 △환경보호 △교통 △관광 분야에서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PPP 사업 협력은 2015년 10월 쑤저우 공업단지의 업그레이드를 주제로 한 제9차 싱가포르·장쑤 협력협의회에서도 중요한 의제였음. 따라서 한·장쑤 협력에서도 PPP 사업 참여를 주요 의제로 제기해 논의해볼 수 있음.
  - 장쑤성은 최근 내수용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선점하기 위해 기존의 가공무역기지 활용보다는 내수시장 맞춤형 수출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對장쑤성 수출 중 중간재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수용 중간재 시장으로의 수출확대를 고려해야 함.
  - 또한 장쑤성 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지만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한국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내구 소비재,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농식품, 화장품 등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sup>38)</sup>
- 장쑤성의 북부에 위치한 화이안(淮安), 연청(盐城), 련윈강(连云港) 등을 13·5 시기 새로운 투자처 또는 물류기지로서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개혁·개방 이후 상하이시의 배후지로서 쑤저우(苏州)를 위시한 장쑤 남부지역에 해외자본이 집중 투자되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제조업 기지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장쑤성의 경제성장을 이끌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장쑤성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북부지역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화이안은 대만 기업의 새로운 투자처가 되고 있음. 또한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시범도시로서 성 정부 차원에서 연청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특히 장쑤성 정부는 2015년 8월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동릉하이철도경제벨트발전계획(2015~20, 沿东陇海线经济带)」을 발표하여 북부지역인 쑤저우(徐州)와 련윈강 등지의 통합을 추진하고 인프라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 아울러 2016년 장쑤성 정부의 주요 업무로 중·한연청산업단지, 화이안 대만기업 이전 집적 서비스시범구(淮安台资企业产业转移集聚服务示范区) 건설 추진이 강조됨.
  - 련윈강은 일대일로 전략의 거점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중앙아시아 및 유럽 수출확대를 위한 물류기지로서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련윈강은 중앙아시아행 련신야(连新亚)<sup>39)</sup> 정기화물운송철도의 출발지점으로, 한국제품의 중앙아시아 수출 시 련윈강을 경유하여 이 철도를 이용하고 있어 우리에게 중요한 지역임.

38) 이상훈 외 2인(2015), 「중국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 분석: 장쑤성」, 중국권역별·성별기초자료, 제15-0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9)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련신야(连新亚) 철도는 련윈강(连云港)-신장(新疆)-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알마티)를 잇는 노선으로 2015년 2월 개통됨.

-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전자제품의 시장점유율이 80%에 달하는 가운데, 렌신야 루트는 물류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음.
- 장쑤성 정부도 쉰윈강의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교량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 중서부지역과 실크로드 관련 국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쉰윈강에 국제적인 종합물류항구기지 구축할 계획임을 밝힘.

## 라. 저장성

### ■ 저장성의 13차 5개년 계획기간 정책방향은 산업의 융합과 업그레이드이며, 저장성은 13·5 시기에 인터넷과 서비스 위주의 산업구조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됨.

- 현지 전문가들은 13·5계획기간이 저장성의 경제발전과 산업발전에 중요한 시기이며 산업구조 개편과 저장성의 잠재력을 강조함.
  - 저장성 공업정보화연구원 란젠핑(兰建平) 원장은 13·5 시기는 저장성 경제발전 동력 전환에 중요한 시기이며 국제적인 글로벌 밸류 체인과 분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저장성도 새로운 산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긴요하다고 지적함.<sup>40)</sup>
  - 또한 저장성 발전기획연구원 황용(黄勇) 원장은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화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저장성이 이미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인터넷 중심의 IT경제도 중국 전체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이 지역경제발전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고 낙관함.<sup>41)</sup>
- 이에 따라 13·5계획에서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12·5계획기간에 중점 시행되었던 전통산업 개조와 업그레이드,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과 함께 인터넷과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 발전을 새롭게 강조함.

### ■ 13·5계획기간 저장성이 중점적으로 육성시킬 7대 산업 중 우리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헬스케어, 패션, 첨단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 및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음.

- 13·5 기간의 7대 주력산업 중 하나로 헬스케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수출확대를 타진할 필요가 있으며, 저장성의 고령화 수준을 고려할 때 양로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볼 수 있음.
  - 6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4%(2014년, 950만 명)로 상하이 다음으로 고령화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elderly care)가 부족함.<sup>42)</sup>
- 저장성은 항저우, 원저우(温州), 닝보(宁波), 사오싱(绍兴)을 중심으로 의류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의류 및 관련 원부자재 수출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서 최근에는 OEM보다는 독자 브랜드 개발과 품질에 기초를 둔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음. 따라서 디자인 분야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중국의류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 첨단장비제조업 중 로봇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이 로봇 분야에서 국제적인 인지도나 기술력은 아직 높지 않으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공조체제를 제안해 볼 수 있음.
  - 저장성의 로봇사업 규모는 중국 내 4위를 차지하나, 사용 중인 로봇의 90% 이상이 수입제품이며 기술적으로 초보적인

40) 「浙江“十三五”前瞻：坚持创新驱动战略首要地位」(2016. 2. 4), 浙江经贸网(검색일: 2016. 2. 29).

41) 「“十三五”浙江经济怎么走 专家：仍然是机遇期」(2015. 12. 8), 『浙江在线-浙江日报』(검색일: 2016. 2. 29).

42) EIU(2015), *China Access Zhejiang*. December, p.11.

수준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선진국과의 로봇 관련 기술 협력을 희망함.<sup>43)</sup>

- 지속적으로 자동화수준을 제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산업용 로봇 수요 증대와 공장 자동화시스템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저장성의 국가급 또는 성급 차원의 주요 시범사업이 항저우, 닝보, 저우산(舟山)을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저장성과의 경제 협력을 추진할 때 이들 도시를 우선적인 사업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음.

- 항저우는 전자상거래, IT, 문화콘텐츠, 금융 등 저장성의 서비스경제를 견인할 주요 분야가 집중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가급 시범사업도 집중되어 있는 도시이므로 저장성과의 서비스 분야 협력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도시임.
  - 항저우는 △2015년 국가간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sup>44)</sup>로 지정되었고 △저장성 S/W 및 애니메이션업체의 70% 이상, 센서업체의 40% 이상이 항저우고신구(高新区)에 입주해 있으며 △금융서비스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어서 2015년 1월까지 104개의 금융기관이 입주함.
- 닝보는 항저우에 이어 2016년 국가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 지정되었으며, 보세구, 보세물류센터,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을 위한 산업단지 등과 닝보국제전시센터, 닝보보세구, 메이산 보세항구 등 수입상품 전시거래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음.<sup>45)</sup>
- 저우산은 중국 최초의 해양개발특구인 저우산군도신구(舟山群岛新区)<sup>46)</sup>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해양산업 발전과 물류 거점으로서의 큰 잠재력을 지님.

■ 저장성이 13·5규획에서 제시한 수입 전략, 해외투자 전략 및 외국인 투자유치전략 중 우리가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발표되는 세부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활용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저장성은 개방형 경제 건설을 위해 저장성 기업의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및 수입 확대에 대한 정책도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서비스의 경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확대 효과를 노릴 수도 있음.
  - 수입을 확대하려는 분야는 선진기술과 핵심설비, 에너지관련 상품,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제품 등임.
- 또한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의 장려의지도 강하므로 저장성 정부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지의 IR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저장성 정부는 2016년 주요업무로 로컬기업의 다국적 M&A를 장려하고 대기업을 해외에 생산기지, R&D 및 디자인센터, 판매망을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임.
- 저장성의 투자유치전략 중 '절상회귀(浙商回归, Return to Zhejiang)' 전략을 한국의 투자유치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절상회귀' 정책은 저장성 출신 기업가가 저장성에 재투자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3·5 기간에도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될 계획임.
  - 이 제도를 통해 저장성 소재 시(市)는 저장성으로 귀환한 기업에 대해 1대1 맞춤형 정책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을 보유한

43) Global Window(2015),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저장성 로봇산업 열풍」.

44) 2016년 1월 국가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 텐진, 라오닝,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산둥, 허난, 광둥, 충칭, 쓰촨이 지정됨.

45) 东南商报, 中国(宁波)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2016. 1. 6), <http://tech.hexun.com/2016-01-10/181711066.html>.

46) 상하이푸동신구(上海浦东新区), 텐진빈하이신구(天津滨海新区), 충칭양장신구(重庆两江新区)에 이어 4번째로 설립된 국가급 개발구임.

기업 및 우수인재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며, 전문기금 설립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 지원 등을 제공함.<sup>47)</sup>

-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2015년 저장성에 유입된 금액은 2015년 3,06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함으로써 저장성 투자유치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 지자체도 '절상회귀' 정책을 참고하여 투자 유치시 IR 대상을 외국인투자자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 출신이면서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기업가로 확대하고, 이들의 한국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볼 수 있음.

47) 「浙商抉择: 民资外溢大省期待浙商归来反哺家乡」(2012. 4. 1), 『浙商』(검색일: 2016. 2. 27).



## 참고문헌

### [국문자료]

이상훈, 이한나, 최지원. 2015. 「중국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 분석: 장쑤성」. KIEP.

「중국경제 소비가 답이다」 24개도시 소비실태 분석」. 2016. 『NEWSPIM』 (2016. 2. 25).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225000185>(검색일: 2016. 2. 29).

Global Window. 2015.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저장성 로봇산업 열풍」 (2015. 10. 8).

[http://www.globalwindow.org/GW/chin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115&SCH\\_TYPE=SCH\\_SI&MODE=L&SCH\\_CMDY\\_CATE\\_CD=0000&SCH\\_TRADE\\_CD=000000&ARTICLE\\_ID=5381924&UPPER\\_MENU\\_CD=M10114&NM\\_KO=&BS\\_ID=10&NM\\_EN=&SCH\\_VALUE=%EC%A0%80%EC%8E%A5&MENU\\_STEP=3&Page=1&SCH\\_NATION\\_CD=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http://www.globalwindow.org/GW/chin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115&SCH_TYPE=SCH_SI&MODE=L&SCH_CMDY_CATE_CD=0000&SCH_TRADE_CD=000000&ARTICLE_ID=5381924&UPPER_MENU_CD=M10114&NM_KO=&BS_ID=10&NM_EN=&SCH_VALUE=%EC%A0%80%EC%8E%A5&MENU_STEP=3&Page=1&SCH_NATION_CD=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검색일: 2016. 2. 25)

### [영문자료]

EIU. 2015. *Access Chian Jiangsu*. (December)

\_\_\_\_\_. 2015. *Access China Zhejiang*. (December)

\_\_\_\_\_. 2015. *Access China Shanghai*. (December)

### [중문자료]

「江苏交通厅厅长游天仲：“一带一路”战略为江苏提供新机遇」. 2015. 『人民网』 (2015. 3. 9).

<http://www.people.com.cn/n/2015/0309/c32306-26664011.html>(검색일: 2016. 2. 29).

「江苏社科院专家：一带一路将为建筑业迎来春天」. 2015. JSTV(2015. 7. 28).

[http://www.jstv.com/static/jszd/jsxd/201507/t20150728\\_15883012.shtml](http://www.jstv.com/static/jszd/jsxd/201507/t20150728_15883012.shtml)(검색일: 2016. 2. 29)

「江苏省“一带一路”投资基金5年内将达300亿」. 2015. 『苏州日报』 (2015. 11. 28).

<http://news.subaonet.com/2015/1128/1591030.shtml>(검색일: 2016. 2. 28)

江苏省人民政府. 2015. 「落实“一带一路”国家战略部署 对内对外开放空间新闻发布会」 (2015.10.15).

[http://www.js.gov.cn/szfxwfbh/xwfbhzh/201510/t20151015\\_406113.html](http://www.js.gov.cn/szfxwfbh/xwfbhzh/201510/t20151015_406113.html)(검색일: 2016. 2. 19).

江苏省商务厅. 2015. “抢抓“一带一路”建设机遇 加快江苏企业“走出去”步伐”(2015. 1. 12).

<http://www.jsdoftec.gov.cn/zxft/zxft20150112.asp>(검색일: 2016. 2. 19).

「江苏八大领域对接“一带一路”」 (2015. 5. 14), 『每日经济新闻』

<http://www.mofcom.gov.cn/article/resume/n/201505/20150500971344.shtml>(검색일: 2016. 2. 29).

「中国(宁波)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 2016. 『东南商报』. (2016. 1. 6)<http://tech.hexun.com/2016-01-10/181711066.html>.

司桂霞 徐长乐 秦可德. 2014. 「新形势下长三角区域转型升级的突破点与潜在增长点」. 『科技管理研究』, 2014年 第20期.

- 「上海：到2020年形成具有全球影响力的科创中心」. 2015. 『第一财经』(2015. 12. 16).  
<http://www.yicai.com/news/2015/12/4726687.html>(검색일: 2016. 2. 29).
- 上海市人民政府. 2016. 「迎接未来五年机遇与挑战上海十三五规划建议解读」(2016. 2. 3).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39309/nw39385/nw39394/u21aw1102055.html>(검색일: 2016. 2. 20).
- 上海市统计局, 国家统计局上海调查总队. 2015. 『上海统计年鉴2015』. 国家统计出版
- 「上海市政府工作报告」. 2016. 『中国经济网』(2016. 2. 2).  
[http://district.ce.cn/newarea/roll/201602/01/t20160201\\_8674473.shtml](http://district.ce.cn/newarea/roll/201602/01/t20160201_8674473.shtml)(검색일: 2016. 2. 11).
- 「沈晓明孙继伟：上海自贸区是浦东最大机遇 强化“四个中心”与自贸区联动」. 2016. 商路通(2016. 1. 11).  
<http://www.3566t.com/news/olso/3466349.html>(검색일: 2016. 2. 29).
- 「“十三五”浙江经济怎么走 专家：仍然是机遇期」. 2015. 『浙江在线—浙江日报』(2015. 12. 8).  
<http://news.eastday.com/eastday/13news/auto/news/csj/u7ai5029189.html>(검색일: 2016. 2. 29).
- 杨雄 2015. 「关于《中共上海市委关于制定上海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讨论稿)》的说明(2015年12月15日)」.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2315/nw4411/u21aw1091093.html>.
- 「粤苏进七万亿俱乐部供给侧改革成各省实现目标重要途径」. 2016. 『人民网』(2016. 1. 28)  
<http://leaders.people.com.cn/n1/2016/0128/c58278-28092184.html#>(검색일: 2016. 2. 4).
- 「浙江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2016. 2. 1), 『浙江日报』, 第001版
- 「浙江“十三五”前瞻：坚持创新驱动战略首要地位」. 2016. 浙江经贸网 <http://www.zjimgov.cn/show-31066.html>(검색일: 2016. 2. 29).
- 「浙商抉择：民资外溢大省期待浙商归来反哺家乡」. 2012. 『浙商』(2012. 4. 1).  
[http://biz.zjol.com.cn/05biz/system/2012/04/01/018381662\\_01.shtml#a](http://biz.zjol.com.cn/05biz/system/2012/04/01/018381662_01.shtml#a)(검색일: 2016. 2. 27)
- 「中共江苏省委关于制定江苏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2015. 『人民网』(2015. 12. 3).  
<http://leaders.people.com.cn/n/2015/1203/c400473-27886733.html>(검색일: 2016. 2. 17).
- 「中共上海市委关于制定上海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2015. 『人民网』(2015. 12. 24).  
<http://leaders.people.com.cn/n1/2015/1224/c58278-27970865.html>(검색일: 2016. 2. 17).
- 「中共浙江省委关于制定浙江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2015. 『人民网』(2015. 12. 4).  
<http://leaders.people.com.cn/n/2015/1204/c58278-27889612.html>(검색일: 2016. 2. 17).
- 「中共浙江省委关于制定浙江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 2012. 『中国经济网』(2012. 6. 11).  
[http://district.ce.cn/zt/zlk/bg/201206/11/t20120611\\_23397601.shtml](http://district.ce.cn/zt/zlk/bg/201206/11/t20120611_23397601.shtml)(검색일: 2016. 2. 15).
- 浙江省发展和改革委员会课题组. 2016. 「浙江省“十三五”服务业发展基本思路及对策建议(上)」. 『浙江经济』2015年 24期
- 浙江统计局. 2016. 「砥砺奋进转型发展——“十二五”时期浙江经济社会发展报告」.  
[http://www.zjstats.gov.cn/tjfx\\_1475/tjfx\\_sjfx/201602/t20160218\\_169277.html](http://www.zjstats.gov.cn/tjfx_1475/tjfx_sjfx/201602/t20160218_169277.html)(검색일: 2016. 2. 15).
- 香港特别行政区政府海事处. 2016. 「Ranking of Container Ports of the World」.  
[http://www.mardep.gov.hk/en/publication/pdf/portstat\\_2\\_y\\_b5.pdf](http://www.mardep.gov.hk/en/publication/pdf/portstat_2_y_b5.pdf)(검색일: 2016. 2. 28).

## [웹사이트]

CEIC Database.

江苏省商务厅. <http://www.jsdoftec.gov.cn/>.

江苏省人民政府. <http://www.js.gov.cn/szfxwfbh/>.

江苏省统计局. <http://www.jssb.gov.cn/>.

上海市统计局. <http://www.stats-sh.gov.cn/>.

人民网. <http://www.people.com.cn/>.

中国经济网. <http://www.ce.cn/>.

浙江省发展和改革委员会. <http://www.zjdpc.gov.cn/>.

浙江省统计局. <http://www.zj.stats.gov.cn/>.